

유학생 학업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양과목 운영 사례* - P대학 교양과목 <열린사고와 표현>을 중심으로 -

차 윤 정**

1. 서론
2. 교양과목 <열린사고와 표현>의 수업 구성
3. 수업 운영 사례
4. 조사 분석 및 교육 방안
5. 결론 및 제언

<국문초록>

이 연구는 P대학 교양수업에 참여한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조별 활동을 통한 토론, 토론과 연계한 학술적 글쓰기 수업을 진행한 후, 설문조사를 통해 수업에 대한 반응을 분석하고 보다 효과적인 교육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토론 수업과 학술적 글쓰기 수업이 대학에서의 학업 수행에 도움이 되었으며, 교양 수업으로도 필요하다는 데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토론 수업에서는 주장 분명히 하기, 논점 찾기, 근거 제시 방법 이해하기 등에 도움을 받았으며, 한국어로 토론하기와 토론 내용 구성하기를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술적 글쓰기 수업에서는 학술적인 글의 형식 이해, 주제와 뒷받침 문장의 논리적 제시 방법을 아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인식했으며, 서론, 본론, 결론 구조에 맞춰 글을 쓰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과 연계한 학술적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인문·사회계열 연구활성화 지원사업(2023)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부교수(greencha@pusan.ac.kr)

글쓰기가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많았지만, 토론 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 되거나 조별 활동의 어려움으로 인해 부정적인 응답도 있었다. 조별 활동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조사에서는 협력학습의 긍정적 효과를 인식하였으나, 많은 시간 소요와 구성원 참여 태도의 차이로 인해 부정적 응답도 있었다. 따라서 유학생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조별 활동, 토론과 학술적 글쓰기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토론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안내하고, 토론과 학술적 글쓰기를 위한 논리 구성에 집중하도록 지도하며, 효율적인 조별 활동 방법과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어: 유학생, 조별 활동, 토론, 학술적 글쓰기, 교육방안

1. 서론

이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양수업에서 조별 활동을 통한 토론, 토론과 연계한 학술적 글쓰기 수업을 진행한 후, 설문조사를 통해 수업에 대한 반응을 분석하고, 보다 효과적인 교육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코로나 팬더믹 종식 후, 한류의 영향과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노력으로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유학생들은 낯선 문화와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물론 교수 관계나 새로운 교육 방식에 적응해야 하는 등 학업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 적응 실태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유학생들은 학업에 소극적이고, 전공 지식에 있어 한국 학생들과 수준 차이가 난다고 인식하는 것은 물론, 시험, 과제, 발표 등을 이행할 능력과 방법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업 수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한국어 의사소통, 컴퓨터 능력, 학술적 글쓰기, 전공 교과지식, 영어 능력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수업에서의 토론이나 조별 활동은 유학생들의 학업을 힘들게 하는 요인으로 조사되었다.¹⁾ 그런데 토론과 조별 활동은 국내 대부분의 대학에서

활용하는 수업 방식이며 학술적 글쓰기는 대학 수학 과정에서 수행되는 글 쓰기의 전형적인 양식이라는 점에서, 유학생들의 학업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토론과 학술적 글쓰기 교육에 대한 선행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부분들에 주목하였다. 토론 교육에서는 토론의 구조와 토론의 형식, 논증구조를 교육해야 하며,²⁾ 토론에서 활용되는 토론 전략과 한국어 표현을 교수하는 것³⁾과 함께 학습자의 불안 관리,⁴⁾ 정서적 측면에서 교수자의 격려와 지지가 필요⁵⁾하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학술적 글쓰기에서는, 참고 자료를 수집하고 선별하는 능력,⁶⁾ 읽은 내용을 통합, 재구성해 글에 녹여 내는 능력⁷⁾ 학문적 담화공동체가 요구하는 쓰기 관련 지식 및 전략,⁸⁾ 한국어 능력보다 글쓰기 능력 자체를 향상시킬 필요성⁹⁾에 주목하였다.

그동안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토론과 학술적 글쓰기 교육에 대한 논의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두 가치를 연계한 교육에 관한 논의

- 1) 이선영·나윤주,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적응 실태조사-교양교과목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교양교육연구』 12(6), 한국교양교육학회, 2018, 187~189쪽.
- 2) 이지용, 「학문 목적 한국어 토론 교육 방안: 논증 범주를 중심으로」, 『한국어정보학』 14(2), 한국어정보학회, 2012.; 김민애, 「한국어 토론 수업 내용 연구: 고급 학습자의 논증 구성을 중심으로」, 『어문학논총』 30(1),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2011.
- 3) 김수은·이선영, 「외국인 학부생 대상 전략 중심 토론 수업의 효과」, 『우리어문연구』 59, 우리어문학회, 2017.; 이미선, 「한국으로 유학 온 유학생들의 학술적 글쓰기에 대한 어려움과 원인 탐색 및 요구 분석」,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0(5),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2021.
- 4) 한하림·이지혜,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토론 불안 연구」, 『이중언어학』 71, 이중언어학회, 2018.
- 5) 주월량,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토론 태도에 미치는 요인 분석 연구」, 『이중언어학』 82, 이중언어학회, 2021.
- 6) 이준호, 「대학 수학 목적의 쓰기 교육을 위한 교수요목 설계-보고서 쓰기 교육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7) 장은경, 「한국어 학문 목적 쓰기 교육 방안 연구-참고텍스트의 내용 통합과 재구성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윤지원·전미화,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 쓰기의 내용 지식 구성 양상 연구」, 『우리말글』 58, 우리말글학회, 2013.; 최은지, 「고급 학습자들의 담화통합 쓰기 양상」, 『이중언어학』 49, 이중언어학회, 2012.
- 8) 손다정·장미정, 「쓰기 지식을 중심으로 한 학문 목적 한국어 쓰기 교육의 연구 경향」, 『語文論集』 56, 중앙어문학회, 2013.
- 9) 송명진,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학 글쓰기 교육 연구」, 『리터러시 연구』 13(5), 리터러시학회, 2022.

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데 토론과 학술적 글쓰기는 논증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말하기로서의 토론과 글쓰기로서의 학술적 글쓰기는, 청중과 독자를 설득하기 위한 의사소통 방식으로서 논증 자료에 근거하여 논리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양수업에서는 토론과 연계한 학술적 글쓰기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¹⁰⁾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양수업에서 토론과 학술적 글쓰기, 다른 학생들과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조별 활동 관련 교육이 제공될 필요성을 전제하고, 세 가지 활동이 모두 포함된 교양수업의 사례를 통해, 이를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P대학의 교양필수 과목인 〈열린사고와 표현〉은 민주시민 양성과 의사소통 역량 강화, 사고 능력 향상이라는 교육목표 아래,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능력의 향상을 꾀하고자 한다. 특히 〈열린사고와 표현〉에서는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읽기, 토론, 학술적 글쓰기 등 대학에서의 학업 수행에 필수적인 활동을 교육과정에 포함하고 있으며,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조별 활동을 수행한다. 이런 점에서 〈열린사고와 표현〉은 유학생들의 대학에서의 학업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목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교양과목 〈열린사고와 표현〉을 듣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조별 활동을 통한 토론, 토론과 연계한 학술적 글쓰기 수업을 진행한 후, 학습자 만족도 조사를 통해 유학생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다.

2. 교양과목 〈열린사고와 표현〉의 수업 구성

P대학의 〈열린사고와 표현〉은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 교양필수 과목으로

10) 강수진, 「논증적 글쓰기와 교육 토론의 통합 수업 모형 연구」, 『교양교육연구』 7(6), 한국교양교육학회, 2013; 김유미,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 토론과 쓰기의 연계성 활성화 방안」, 『우리어문연구』 56, 우리어문학회, 2016.

매주 2시간(100분)씩 운영된다. <열린사고와 표현>의 수업은 크게 읽기, 토론하기, 글쓰기의 세 영역으로 구성된다. 읽기 수업에서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게 논의되는 8가지 대주제에 따라 교재에 제시된 다양한 장르의 글을 읽고, 관심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조를 구성하여 발표를 진행한다. 이후 조별로 이 주제를 바탕으로 토론의 논제를 제안하고 논제에 따라 토론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토론을 바탕으로 학술적 글쓰기를 수행한다. 15주 수업 중, 중간 평가까지는 주로 읽기와 토론 이론을 중심으로 한 수업이 이루어지고, 이후에는 토론하기와 학술적 글쓰기 수업이 진행된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읽기-토론-학술적 글쓰기의 상관관계 속에서 학생들의 의사소통 역량과 사고 역량 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유학생들이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토론과 학술적 글쓰기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토론은 특정 주제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정해진 토론 규칙에 따라 자신의 주장에 대한 논거를 제시하여 자신의 생각이 옳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설득적 말하기 방식이다. 학술적인 글이란 특정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신뢰성 있고 타당한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증명하여 설득하는 글을 말한다. 이런 점에서 대학에서 수행하는 보고서와 논문 같은 학술적인 글은 논증적 글의 일종이다.

토론과 학술적 글쓰기는 청중과 독자를 설득하기 위한 의사소통 방식으로, 논증 자료에 근거하여 논리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논증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토론과 학술적 글쓰기는 의사소통 영역 가운데 각각 말하기와 글쓰기라는 표현 영역에 해당한다. 그런데 토론과 학술적 글쓰기는 말하기와 글쓰기라는 점 외에도 의사소통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토론은 쌍방향적 의사소통 방식이다. 학생들은 토론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는 것은 물론 상대방의 주장을 함께 들으면서 생각의 폭을 넓히기도 하고 오류를 수정하며 적합한 설득의 방식을 찾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생각의 폭을 넓히는 확산적 사고나 확장적 사고를 경험하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방법을 찾기도 한다. 이에 비해 학술적 글쓰기는 일방향적 의사소통 방식이다.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일방적으로 독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설득하는 방식이다. 학생들은 읽고 이해

한 다양한 자료들을 모아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논리적으로 기술함으로써 독자를 설득하는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확산된 사고를 하나의 주제에 맞춰 수렴적 사고를 하게 된다. 설득을 위한 사고의 과정에서 볼 때, 토론을 통해 확산적 사고를 하고 오류의 수정을 거친 후, 이를 다시 자신의 주장에 맞게 수렴적 사고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토론과 논증적 글쓰기를 연계한 수업을 구성할 때, 토론 활동을 수행한 후 이와 연계하여 학술적 글쓰기를 수행하고자 한다.

〈열린사고와 표현〉은 한국인 분반과 외국인 분반으로 나누어 운영된다. 사례 연구는 2022년도 2학기 외국인 분반 수업에 참가한 27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¹¹⁾ 한국인 분반과 외국인 분반의 교육과정은 같지만 학습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에 변화를 줄 수 있다. 유학생들은 〈열린사고와 표현〉 외국인 분반에서 강좌를 수강한다. 외국인 분반 수업의 경우, 교과목의 교육목표는 동일하나 학생들의 특성을 반영하여 교육목표 중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둘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학생들이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과 관련하여 토론, 학술적 글쓰기, 조별 활동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읽기, 토론, 글쓰기의 세 영역 중 토론과 글쓰기 영역을 중심으로 수업의 진행 과정을 살펴기로 한다.

3. 수업 운영 사례

토론 수업 이전 단계에서는 교재에서 제시한 8개의 주제에 대한 읽기와 강의, 발표가 이루어진다. 학생들은 관심 있는 주제를 하나씩 선택하며, 같은 주제를 선택한 학생 3~4명이 하나의 조를 구성하여 주제에 대해 발표한다.¹²⁾ 이때 동일한 주제 아래 2개의 조가 배치되도록 미리 조율한다.¹³⁾ 2조

11) 외국인 분반 학생들의 국적은 중국(13명), 베트남(3명), 몽골(2명), 우즈베키스탄(2명), 러시아(4명), 일본(2명), 프랑스(1명) 등이었다. 한국어능력 급수는 4급(8명), 5급(10), 6급(9)으로 구성되었다.

12) 원칙은 찬반 입장에 따라 각각 3명이 한 조를 이루어야 하나 수강 학생 수에 따라 한 조의 구성원을 4명으로 하기도 한다.

의 구성원들은 토론 준비 과정에서 선택한 주제와 관련된 논제를 만들고 찬성과 반대의 입장에 따라 찬성조과 반대조로 나누어 토론을 진행한다.

1) 토론하기

(1) 1차시 - 토론의 이해: 토론의 개념과 절차의 이해

학기 초에 실시한 사전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유학생들은 토론 경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칼포퍼 형식의 토론은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⁴⁾ 이러한 결과를 반영하여 강의에서는 먼저 토론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인 논제, 논점, 논거, 입론, 심문, 반론, 최종발언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론 강의 후 학교에서 제공하는, 토론의 기초 이론과 절차(칼포퍼 토론의 변형)에 대해 설명하는 동영상을 활용하여 토론의 기초지식을 숙지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학교에서 개최하는 토론대회 동영상을 활용하여 실제 토론 상황을 시청하면서 입론이나 심문, 반론, 최종발언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이 과정에서 질문을 통해 학생들이 동영상의 토론 내용을 이해했는지, 토론 단계별로 말하는 방법을 이해했는지를 확인하였다. 학생들은 대체로 한국 학생들의 토론 내용을 어려워했으며 잘 알아듣지 못하는 부분도 많았다. 이에 따라 영상 속의 토론 내용을 한번 더 정리해 주고 토론대회 동영상을 다시 시청하도록 과제를 부여했다.

또한 토론 논제에 대한 설명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논제를 만들 수 있도록 논제의 중요성과 논제 만들 때의 유의점, 논제의 문장 형식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읽기 단계에서 동일한 주제를 선택한 6~8명의 학생이 하나의 조가 되어서, 조별로 하나의 논제를 만들어 다음 수업 이틀 전까지 PLATO(온라인 학습터)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은 플라토에 올라온 다른 조의 토론 논제를 확인하고 수업에 들어오도록 하였다.

13) 한국인 분반에서는 학생들이 가능하면 8개의 주제에 대해 모두 발표할 수 있도록 진행된다. 그러나 외국인 분반의 경우, 학습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읽기와 토론을 분리하였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선택하지 않은 주제는 교수자가 강의로 대체하여 진행하였다.

14) 27명 중 25명은 토론 경험이 전혀 없다고 답했으며 2명은 자유토론 형식의 토론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2) 2차시 - 토론의 이해: 논제 및 논거 정하기

이 단계는 논제를 선정하고 논제에 대한 찬반 입장을 정한 뒤, 이에 따라 새로운 조를 구성하여 토론을 준비하는 단계이다. 먼저 조별 과제로 제출한 논제의 의미와 제안 이유를 명확히 하고 필요 시 논제를 수정하게 하였다. 논제 수정에는 교수자가 개입할 수 있다. 논제에 대한 찬반 입장에 따라 3인~4인이 모여 새롭게 조를 구성하고 토론을 준비하게 했다. 각 조의 구성원들은 의견 교환을 통해 논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를 통해 논점을 명확히 하며, 논점 분석을 통해 논거 및 논거 관련 자료를 찾는다. 이때 미리 배부한 논거 카드를 활용하여 수집한 자료의 목록을 작성하게 하였다. 논거 자료에 대한 정리는 조별 상황에 따라 방과 후 활동으로 연계할 수 있게 했다.

이 단계에서 유학생들은 번역 사이트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해 제재하지 않았다. 물론 모든 활동을 한국어로 하면 좋겠지만, 유학생들 입장에서 한국어로 자료를 찾아서 읽고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 아예 포기하는 학생이 생기거나 자료를 제대로 찾지 못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면, 토론 수업 진행에도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한국어 단어로 기사나 논문을 검색하여 자료를 찾고 대략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필요한 부분을 모국어로 번역하여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함께 모국의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조별 활동은 수업 시간과 방과 후에 진행되었다. 수업 시간의 조별 활동은 한국어를 잘하는 학생이 포함된 경우 더 활발한 모습을 보였다. 그 학생이 중심이 되어 논거 찾기가 이루어지고 구성원의 역할을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한국어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의 경우 참여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조 구성원들이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었다. 한국어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구성원들에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구성원들이 고루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도록 지도했다.

교양과목에서의 조별 활동에 대한 경험은 전공과목에서의 조별 활동 시, 유학생들이 배제되지 않고 스스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한국어 능력이 떨어지는 유학생의 경우 한국 학생들과의 조별 활동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이때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구성원들에게 의사 표현을 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방과 후 조별 활동 지도 시 유의할 점은, 일부 학생들이 조별 활동에 참가하지 않거나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한다. 교양과목은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이 모여서 수강할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도 있어, 조별 활동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대면이 어려울 경우에는 비대면 방식을 활용해서라도 모두가 조별 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또한 구성원의 활동 내용이 포함된 <토론 준비문>의 제출을 통해,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3) 3차시 - 토론의 전략 구성

이 시간에는 실제 토론에서 사용될 입론서 작성에 대한 설명과 입론서 작성이 이루어진다. 입론서 내용은 토론의 모두 발언으로 논제와 그에 대한 입장, 논거와 논거 자료, 최종발언 등으로 이루어진다. 학생들은 조별활동을 통해 지난 시간에 이루어졌던 논제 분석 및 논거 선정, 자료 수집을 바탕으로 입론서를 작성한다.

유학생들은 한국어로 입론서를 작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입론서의 내용을 구성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국어로 표현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이 시간에는 학생들에게 조사나 어미 같은 세세한 한국어 표현보다 입론서의 내용 구성에 집중하도록 하였다. 한국어 표현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입론서 작성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입론서 작성 과정에서는 학생들에게 번역 사이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를 따랐으나 간혹 번역 사이트를 사용하는 경우도 나타났다. 입론서 작성은 글쓰기 활동이므로 번역 사이트를 사용하는 것은 한국어 글쓰기 능력 신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미리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

반론이나 심문, 최종발언의 내용 구성은 입론서를 작성한 뒤 수업 시간을

활용하거나 방과 후 조별 활동을 통해 준비하게 하였다. 학생들에게 입론서를 활용하여 반론, 심문, 최종발언의 내용을 구성하게 하되, 입론서를 똑같이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다. 수업 시간에는 상세하게 글을 완성하기보다 주장과 논거, 자료 배치에 집중하게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반론, 심문을 예측하게 하고 답변과 자신들의 심문을 준비하게 하였다. 대부분의 조에서는 입론서를 토론 개요서로 활용하였으며, 상대방의 입장에서 어떤 반론이 나올지를 예상하면서 개략적인 내용을 작성하였다. 구체적인 토론문은 역할 담당자가 기술하여 방과 후 조별활동을 통해 확인하고 다듬는 과정을 거쳤다.

이 과정에서는 토론 평가서 작성에 대해 안내할 필요가 있다. 실제 토론이 진행될 때, 학생들은 토론조와 청중조로 나뉜다. 토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생들이 토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청중이 되는 학생들에게는 토론 평가서를 작성하게 한다. 이를 위해 미리 학생들에게 토론 평가서를 제시하고 평가항목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평가서 작성을 통해 학생들은 평가자의 역할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토론할 때 유의할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숙지하게 된다.

(4) 4~7차시 - 토론하기

이 시간에는 토론문을 토대로 실제 토론이 진행된다. 학생들은 토론 시 대립되는 의견을 들으면서 사고의 폭을 확장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비판적,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합리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에 대해 습득하게 된다.

토론 시에는 정해진 토론 시간과 규칙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상대에 대한 예의도 지켜야 한다는 주의사항을 설명한 뒤 토론을 진행하였다. 조별 토론이 진행되는 동안 교수자는 별도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론에 개입하지 않았다. 토론이 끝난 후, 청중의 질문이 있을 때는 질문을 받은 조에서 답하도록 하고 필요할 시 교수자가 보충 답변을 하기도 하였다. 질의 시간이 끝나고 난 후, 조별, 개인별 간단한 피드백을 진행하였다. 각 조별 토론은 청중조와 교수자의 평가를 함께 모아서 토론 평가에 반영하였다.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토론을 처음 경험할 뿐만 아니라 한국어로 토론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감이 크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학생들은 토론문을 통

째로 암기해서 말하는 경우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토론 상대자를 쳐다보지도 않고 써온 토론문을 그대로 읽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상대방의 토론 내용을 듣지 않고 자신이 준비한 것을 일방적으로 읽는 것이 되어서, 토론이 단순한 읽기로 변질되어 그 의미가 퇴색된다. 따라서 교수자는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학생들이 토론문을 여러 번 읽어봄으로써 내용을 숙지하고 토론 시 토론문을 참고해 가면서 말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또한 자신의 토론 발언을 녹음하여 들어보고 어색한 부분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무엇보다도 조별로 모여서 구성원들이 서로 말하기를 들어주고 문제점을 지적해주며, 반대 입장이 되어서 질문을 던지고 답하는 토론 연습을 해보는 것이 가장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려준다.

토론조가 아닌 학생들은 청중이 되어서 토론 평가서를 작성하였다. 평가는 조 구성원들의 논의를 통해 작성되며, 토론 평가서에는 잘된 점과 수정해야 할 점을 기술하게 하는데, 토론조에 대한 평가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학생들에게 작성된 토론 평가서가 평가조에 대한 평가자료도 된다는 점을 미리 안내하여 학생들이 토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금까지의 토론 수업 과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1〉 토론 수업의 교수모형

단계		차시	교수-학습 활동
토론 준비 단계	토론의 이해 및 토론 전략	1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론의 개념, 필요성, 용어 • 토론 유형과 절차, 토론 전략 • 논제의 유형
		2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제 선정 • 논점 분석 • 논거 자료 찾기(도서, 사이트, 영상 등)
		3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론서 쓰기, 반론, 최종발언 준비
토론 단계	토론	4~7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별로 선정한 논제로 토론하기
토론 후 단계	피드백	4~7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료 평가 및 교수자 평가, 피드백

2) 학술적 글쓰기

학술적 글쓰기 능력은 대학에서 학업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능력이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 보았듯이 외국인 유학생들은 학술적 글쓰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유학생들의 학업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술적인 글에 대한 이해와 실천 능력으로서 글쓰기 능력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학술적 글쓰기 단계는 학술적 글쓰기에 대한 이론을 배우고 토론하기를 통해 구성된 의미를 바탕으로 실제로 학술적 글쓰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교수자가 피드백을 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1) 8차시 - 글쓰기 전 단계

학생들의 학술적 글쓰기 능력 향상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교육되어야 할 것은 학술적인 글에 대한 이해이다. 이 단계에서는 학생들이 학술적인 글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실제 글쓰기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학술적 글쓰기에 대한 이론 교육을 한다. 즉 학술적인 글이 논증적 글의 범주에 속하며, 논증적 글은 글쓴이가 수집한 자료나 정보에 근거하여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글이라는 점, 형식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를 가진다는 점, 논증적인 글에서 자주 사용되는 어휘나 표현이 있다는 점 등이다. 이런 점에서 학술적 글쓰기 교육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논증적 글이라는 텍스트의 특징이다. 그런데 논증적 글쓰기 역시 글쓰기의 하위 분야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글쓰기 교육의 틀을 따른다. 다만 논증적 글이라는 텍스트가 가지는 특징 때문에 일반적인 글쓰기 교육의 과정이나 방법에, 논증적 글쓰기의 특징이 더해지거나 특정 부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논증적 글의 특징을 고려할 때 학술적 글쓰기 교육에서는,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능력, 텍스트의 구조를 알고 내용을 논리적으로 조직하는 능력, 글의 특성에 맞는 어휘, 표현을 사용하는 능력을 신장시켜 글을 쓸 수 있도록 지도했으며, 각주와 참고문헌 적는 방법까지 지도하였다. 특히 학술적 글이 형식적 정형성을 가진 텍스트라는 점에서, 그 특징을 반영하여 효율적으

로 글쓰기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글쓰기 방법과 전략을 활용했다. 이론적 설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범이 될 만한 예시 글을 활용하여 글의 구조와 내용 생성 방법 및 표현 방법, 각주, 참고문헌 등 학술적인 글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확인하게 했다.

(2) 9~10차시 - 글쓰기 단계

이 단계에서는 자신이 참여했던 토론의 논제를 바탕으로 쓸 글의 주제를 정하고 아이디어를 생성, 논거 자료를 찾아 논리적으로 배치함으로써 독자적인 글을 구성하고 글을 쓴다. 이 단계에서는 토론 단계에서 조원들과 함께 구성했던 의미가, 개인의 논리에 따라 새로운 의미로 구성된다. 새롭게 구성된 의미는 논증적 글쓰기 양식에 맞추어 글로 표현된다. 토론이 조별로 이루어지는 집단 활동이라는 점에서, 주장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찾거나 그것을 논리적으로 배치하는 일은 협력 활동이라 할 수 있는 반면, 이에 기반한 논증적 글쓰기는 토론 과정에서의 협동적 결과물을 다시 독자적 사고 과정을 거쳐 글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개별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글쓰기는 2주에 걸쳐 수업 시간에 이루어진다. A4 용지 3~4매 분량의 글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100분 만에 글을 완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글쓰기 단계 첫 주에서는 글의 개요를 완성하고 둘째 주에서는 실제 글쓰기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하였다. 교수자는 글 쓰는 과정에서의 학생들의 질문에 답하고 각주 다는 방법 등의 오류에 대해서는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시 설명했다. 글을 완성한 후 자체적으로 검토와 수정을 거쳐 제출하게 했다.

유학생들의 글쓰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번역기 사용이다. 토론 자료를 조사할 때는 번역기 사용을 허용하였으나, 글쓰기 과정에서는 번역기 사용을 금지하였다. 하지만 간혹 교수자의 눈을 피해 번역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하였다. 학생들이 글쓰기 과정에서의 번역기 사용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스스로 사용하지 않도록, 번역기 사용이 한국어 쓰기 능력 신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3) 11차시 - 글에 대해 피드백하기

이 단계에서는 완성된 글에 대해 교수자가 피드백을 한다. 학생들이 제출한 글은 대체로 토론 과정에서 제시된 논거들을 중심으로 작성되어 글쓰기의 내용이 쓰기 전 단계에 이루어진 토론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함을 보여주었다. 물론 개인의 한국어 능력과 글쓰기 능력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토론이 원활하게 진행된 경우에는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논거를 제시하여 글을 전개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토론이 원활하지 않았던 조의 학생들은 빈약한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작성하여 글의 완성도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토론에서 사용했던 자료들을 그대로 사용했으며, 입론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드물게 토론에서 제시되지 않은 내용을 보충하여 글을 쓴 경우도 있었다. 입론서의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은 토론 과정에서 상대조과 주고받았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혹은 기억하더라도 이것을 한국어로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토론 시 상대방의 질문과 비판 등을 기록하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대체로 학생들의 글은 한국어 능력 수준을 반영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특히 한국어 문장 표현에서 이러한 모습이 많이 드러났다. 특이할 만한 부분은 글의 목차 부분이었다. 같은 주제 아래 비슷한 내용을 담은 글이지만 한국어 목차 부분에서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이는 글의 장별 제목을 붙이는 학생들의 능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핵심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는 능력, 그리고 이를 대표할 수 있는 주제어를 선정하는 능력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유학생들이 학술적 글쓰기를 할 때, 자신이 쓰는 글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글의 제목이나 장별 제목을 내용에 알맞게 붙일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토론 수업 과정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2〉 학술적 글쓰기 수업의 교수모형

단계		차시	교수-학습 활동
글쓰기 전 단계	학술적 글의 특징 파악하기 (예시글 활용)	8차시	• 제목과 목차 보고 글의 내용 예측하기
			• 목차 보고 학술적 글의 구성 파악하기
			• 서론, 본론, 결론의 내용 요약하기
			• 개요 작성하기
			• 서론, 본론, 결론의 전개 구조 파악하기
			• 문어체 사용 확인하기
			• 각 부분별, 내용 전개별 어휘 사용의 특징 파악, 참고문헌, 각주 달기
글쓰기 단계	학술적 글 쓰기	9차시 ~ 10차시	• 토론 논제를 바탕으로 주제 정하기
			• 토론에 사용했던 자료와 추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하기
			• 개요작성하기
			• 서론, 본론, 결론 구성하기
			• 서론, 본론, 결론 쓰기,
			• 수사학적 기법 활용하기, 언어 표현 사용하기, 인용하기, 표 그리기, 각주 달기, 참고문헌 달기, 수정하기
글쓰기 후 단계	피드백	11차시	• 학술적 글쓰기 내용 및 형식에 대한 피드백

4. 조사 분석 및 교육 방안

설문조사는 기말고사 기간에 학술적 글쓰기 피드백 후, 무기명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학생은 모두 27명이다. 설문조사는 토론 및 학술적 글쓰기의 효과와 반응, 학술적 글쓰기에 대한 토론의 효과, 조별 활동의 효과와 반응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4부분으로 나누어 문항이 제시되었다. 또한 자유롭게 의견을 기술할 수 있는 주관식 문항 2개씩을 배치하여 객관식 문항을 보완하였다. 설문문항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설문 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학습자들에게 문항의 의미를 미리 설명하였다.

1) 토론하기

토론에 대해서는 참여도와 효과, 필요성, 어려움 등에 대해 질문하였고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토론하기	응답인원	백분율*
1. 토론 수업에 열심히 참여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9	33.3
② 그렇다	11	40.7
③ 보통이다	5	18.5
④ 그렇지 않다	2	7.4
⑤ 전혀 그렇지 않다	0	0
2. 토론 수업이 대학에서의 공부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9	33.3
② 그렇다	12	44.4
③ 보통이다	4	14.8
④ 그렇지 않다	2	7.4
⑤ 전혀 그렇지 않다	0	0
3. 교양과목에서 토론 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매우 그렇다	9	33.3
② 그렇다	12	44.4
③ 보통이다	5	18.5
④ 그렇지 않다	1	3.7
⑤ 전혀 그렇지 않다	0	0
4. 토론 수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		
① 주장을 분명히 하고 논점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다.	12	44.4
② 자료 조사 방법을 알게 되었다.	2	7.4
③ 주장에 대한 근거 제시 방법을 알게 되었다.	6	22.2
④ 한국어로 설득하는 말하기 방법을 배웠다.	4	14.8
⑤ 나와 다른 입장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	3	11.1

5. 토론 수업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① 토론에 대한 이해 부족	0	0
② 토론 논제 분석하기	4	14.8
③ 토론 논거 찾기	1	3.7
④ 토론 내용 구성하기	7	25.9
⑤ 한국어로 토론하기	15	55.6
5. 교양과목에서 토론 수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6. 토론 수업이 대학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하 모든 표들의 백분율은 소수점 2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 이하 모든 표의 “~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문항은 어떤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답한 학생들도 답하게 했다.

설문조사 결과 토론 수업 참여도와 관련해서는 (매우) 그렇다가 74%, 보통 이다가 18.5%, 그렇지 않다가 7.4%로 나타나, 대부분의 학생들은 스스로가 토론 수업에 열심히 참여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토론 수업이 대학에서의 공부에 도움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이 77.7%, 보통이다가 14.8%, 아니다가 7.4%로 나타나, 많은 학생들이 토론 수업이 대학에서의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양 수업에 토론 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77.7% 정도가 긍정적으로 답했으며 그렇지 않다고 답한 경우는 3.7%로 나타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양 수업에서 토론 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응답을 보면 토론 수업이 대학에서의 공부에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과 교양과목에서 토론 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는 대체로 학생들이 교양과목에서 토론 수업이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데에, 토론이 자신의 공부에 도움이 되었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주장을 분명히 하고 논점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다’가 44.4%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주장에 대한 근거 제시 방법을 알게 되었다’가 22.2%, ‘한국어로 설득하는 말하기 방법을 배웠다’가 14.8%, ‘나와 다른 입장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다’가 11.1%, ‘자료 조사 방법을 알게 되었다’가 7.4%로 나타났다.

토론 수업에서의 어려움을 묻는 응답에서는, ‘한국어로 토론하기’가 55.6%, ‘토론 내용 구성하기’가 25.9%, ‘토론 논제 분석하기’가 14.8%, 토론 논거 찾기가 3.7%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 보아 유학생들은 토론을 준비하는 것보다 실제로 한국어로 토론하는 것을 가장 힘들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학생 토론 교육에서는 한국어로 토론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줄여주는 한편, 한국어로 토론을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토론 내용 준비 시, 분량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정확한 논거 분석을 통해 자신의 주장과 논거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게 하는 지도가 필요하다.

교양과목에서 토론 수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와 토론 수업이 대학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한 물음에는 한 학생만이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해서’라고 답했다. 이는 토론 준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는 점을 말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토론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기보다는 토론 준비와 관련한 시간적 어려움 때문에 토론이 필요 없다거나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답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교수자는 학생들이 토론 준비를 위해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시간 낭비가 아니라 협동 학습을 통해 개별 학습보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오히려 시간을 절약하는 길이기도 하다는 것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와 함께 토론 준비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2) 학술적 글쓰기

학술적 글쓰기에 대해서는 참여도와 효과, 필요성, 어려움 등에 대해 질문하였고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술적 글쓰기	응답인원	백분율
1. 학술적 글쓰기 수업에 열심히 참여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14	51.9
② 그렇다	11	40.7
③ 보통이다	2	7.4
④ 그렇지 않다	0	0
⑤ 전혀 그렇지 않다	0	0

2. 학술적 글쓰기 수업이 대학에서의 공부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15	55.6
② 그렇다	11	40.7
③ 보통이다	1	3.7
④ 그렇지 않다	0	0
⑤ 전혀 그렇지 않다	0	0
3. 교양과목에서 학술적 글쓰기 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매우 그렇다	14	51.9
② 그렇다	12	44.4
③ 보통이다	1	3.7
④ 그렇지 않다	0	0
⑤ 전혀 그렇지 않다	0	0
4. 학술적 글쓰기 수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① 학술적인 글의 형식에 대해 알게 되었다.	12	44.4
② 주제(주장)와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10	37.0
③ 글의 내용에 따라 단락을 구성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0	0
④ 학술적 글쓰기에 사용되는 표현을 알게 되었다.	1	3.7
⑤ 학술적 글쓰기에서 각주, 참고문헌을 적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4	14.8
5. 학술적 글쓰기에서 어려움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① 주제(주장)를 드러내기 위한 중요 항목 선정하기(목차 정하기)	1	3.7
② 글의 내용 준비하기	2	7.4
③ 글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조직하기	4	14.8
④ 서론, 본론, 결론 부분에 맞도록 글쓰기	18	66.7
⑤ 학술적 글쓰기에 사용되는 표현, 문장 쓰기, 각주, 참고문헌 제시하기	2	7.4
6. 교양과목에서 학술적 글쓰기 수업이 필요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7. 학술적 글쓰기 수업이 대학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사 결과, 학술적 글쓰기 수업에 열심히 참여했는가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가 51.9%, 그렇다가 40.7%, 보통이다가 7.4%로 나타나, 92.6%의 학생들이 스스로가 글쓰기 수업에 열심히 참여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한 학생은 없었다. 이로 보아 학생들은 토론보다 학술보고서 쓰기에 더 열심히 참여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학술적 글쓰기 수업이 대학에서의 공부에 도움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매우 도움이 되었다가 55.6%, 도움이 되었다가 40.7%로 나타났으며, 교양과목에서 학술적 글쓰기 수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도 매우 그렇다가 51.9%, 그렇다가 44.4%로 나타났다. 두 문항 모두 보통이다가 3.7%,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한 경우는 없었다. 이로 보아 수업에 참여한 유학생 대부분이 학술적 글쓰기가 대학에서의 학업 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교양과목에서 학술적 글쓰기 수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유학생들은 토론보다 학술적 글쓰기를 통해 학업 수행에 더 많은 도움을 받았으며, 교육의 필요성도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학술적 글쓰기를 교양교육에 포함시키는 것은 유학생들의 한국 대학 생활 적응을 위해 꼭 필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학술적 글쓰기 수업의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학술적인 글의 형식에 대해 알게 되었다가 4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주제(주장)와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가 37.0%, 학술적 글쓰기에서 각주, 참고문헌을 적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가 14.8%, 학술적 글쓰기에 사용되는 표현을 알게 되었다가 3.7%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학술적인 글의 형식을 알게 된 것에서 가장 큰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타 교양이나 전공에서 과제를 제출할 때, 학술적 글쓰기를 해야 한다는 점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상대적으로 주제(주장)와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가 낮은 것은 이미 토론을 통해서도 이에 대한 도움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글의 내용에 따라 단락을 구성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는 응답은 없었는데, 이는 내용에 따라 단락을 구성해야 한다는 글쓰기 원리는 대학 입학 전 한국어 수업에서 이미 학습한 것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¹⁵⁾

학술적 글쓰기의 어려움에 대한 질문에서는 66.7%가 서론, 본론, 결론 항목에 맞도록 글을 쓰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글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조직하기가 14.8%, 글의 내용 준비하기와 학술적 글쓰기에 사용되는 표현, 문장 쓰기, 각주, 참고문헌 제시하기가 동일하게 7.4%로 나타났고 주제(주장)를 드러내기 위한 중요 항목 선정하기가 3.7%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유학생들이 학술적 글쓰기 시, 실제로 서론, 본론, 결론 항목에 맞추어 내용을 한국어로 기술하는 것을 가장 어려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응답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글의 내용 준비하기와 주제(주장)를 드러내기 위한 중요 항목 선정하기의 응답 비율이 낮은 것이다. 이는 이 수업에서 학술적 글쓰기가 토론 후 이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토론을 통해 주제(주장)에 대한 근거 마련과 자료 찾기가 이루어져 쓸거리가 이미 준비되었고 토론문 작성을 통해 이를 논리적으로 조직하는 활동도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학술적 글쓰기의 형식적 특성과 관련된 서론, 본론, 결론 쓰기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66.7%, 학술적 글쓰기에 사용되는 표현, 문장 쓰기, 각주, 참고문헌 제시하기 항목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7.4%라는 점에서, 학생들은 학술적 글쓰기라는 글쓰기 형식을 새롭게 받아들이고 이를 어렵게 느낌을 알 수 있다.

교양과목에서 학술적 글쓰기 수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와 학술적 글쓰기 수업이 대학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응답한 학생은 없었다. 이는 유학생들이 대학에서 학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술적 글쓰기 교육이 필요하며, 수업을 통해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한 것에 상응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토론과 학술적 글쓰기 연계 수업

토론과 학술적 글쓰기 연계 수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
- 15) 하지만 이러한 응답 결과와는 달리, 실제 학습자들이 글의 내용에 따라 단락을 구분하여 작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학술적 글쓰기 교육에서도 내용에 따른 단락 구분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토론과 학술적 글쓰기 연계 수업	응답인원	백분율
1. 토론이 학술적 글쓰기 수업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11	40.7
② 그렇다	7	25.9
③ 보통이다	7	25.9
④ 그렇지 않다	2	7.4
⑤ 전혀 그렇지 않다	0	0
2. 토론이 학술적 글쓰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어떤 부분입니까?		
① 글쓰기 자료를 수집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5	18.5
② 글쓰기에서 주장(주제)을 분명히 하고 논점(중요 내용)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다.	10	37.0
③ 주장(주제)을 뒷받침하는 근거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을 수 있었다.	2	7.4
④ 논리적으로 글의 내용을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7	25.9
⑤ 토론 과정에서 생각의 폭이 넓어져 글의 내용이 풍부해졌다.	3	11.1
3. 학술적 글쓰기를 위해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① 매우 그렇다	11	40.7
② 그렇다	8	29.6
③ 보통이다	6	22.2
④ 그렇지 않다	2	7.4
⑤ 전혀 그렇지 않다	0	0
4. 학술적 글쓰기를 위해 토론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5. 토론이 학술적 글쓰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토론이 학술적 글쓰기 수업에 도움이 되었는가라는 물음에 매우 그렇다가 40.7%, 그렇다와 보통이다가 각각 25.9%, 그렇지 않다가 7.4%로 나타나, 66.6%의 학생이 토론이 학술적 글쓰기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토론이 학술적 글쓰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어떤 부분인가에 대해서는 글쓰기에서 주장(주제)을 분명히 하고 논점(중요 내용)을 찾는 데 도움이 되었다가 37.0%, 논리적으로 글의 내용을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가 각각

25.9%, 글쓰기 자료를 수집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가 18.5%로 나타났으며, 토론 과정에서 생각의 폭이 넓어져 글의 내용이 풍부해졌다가 11.1%, 주장(주제)을 뒷받침하는 근거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을 수 있었다가 7.4%로 나타났다. 이로 보아 학생들은 토론을 통해 글쓰기에서 주장(주제)을 분명히 하고 논점(중요 내용)을 찾고 논리적으로 글의 내용을 구성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토론이 논리성에 기반한 논증적 말하기라는 점에서, 논증적 글인 학술적 글쓰기에 도움이 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학술적 글쓰기를 위해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매우 그렇다가 40.7%, 그렇다가 29.6%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다가 22.2%, 그렇지 않다가 7.4%로 나타났다. 70.3%의 학습자들이 학술적 글쓰기를 위해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관식으로 자유롭게 답하도록 한 ‘토론이 학술적 글쓰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라는 답과 ‘조별 활동이 싫어서’라는 응답이 있었다. ‘학술적 글쓰기를 위해 토론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 명의 학생이 ‘토론 준비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라고 답했다. 두 응답 모두 토론과 학술적 글쓰기를 연계한 학습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직접적인 응답이라기보다는 활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답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 이러한 결과는 토론과 학술적 글쓰기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과도 다소 차이가 있었다. 즉 토론과 학술적 글쓰기 각각의 교육적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습자들이 토론과 학술적 글쓰기 각각의 활동이 대학에서의 학업 수행에 필요하다는 인식은 있으나, 선행연구에서처럼 두 활동이 모두 유학생들이 어렵게 느끼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두 활동을 연계했을 때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이 더 크게 작동한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대부분의 학생들이 두 활동을 연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는 점에서, 토론과 학술적 글쓰기를 연계한 교육이 학습자들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응답자들이 두 활동을 연계한 수업에 시간을 너무 많이 할애해야 한다거나 조별 활동의 어려움 때문에 학술적

글쓰기에 토론을 연계하는 데 부정적인 응답을 했다는 점에서, 이러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별 활동의 경우는 선행연구에서도 유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4) 조별 활동

조별 활동의 필요성과 효과, 어려움에 대한 질문과 응답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별 활동	응답인원	백분율
1. 교양수업에서 조별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5	18.5
② 그렇다	6	22.2
③ 보통이다	9	33.3
④ 그렇지 않다	5	18.5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	7.4
2. 조별 활동이 공부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5	18.5
② 그렇다	5	18.5
③ 보통이다	9	33.3
④ 그렇지 않다	6	22.2
⑤ 전혀 그렇지 않다	2	7.4
3.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어떤 점이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구성원들과의 논의 과정에서 생각이 넓어졌다.	12	44.4
② 다양한 자료를 찾는 데 도움이 되었다.	10	37.0
③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1	3.7
④ 서로 격려하며 자신감을 갖는 데 도움이 되었다.	3	11.1
⑤ 조별 활동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	1	3.7
4. 교양 수업에서 조별 활동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5. 조별 활동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양수업에서 조별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에서는 보통이다가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렇다가 22.2%, 매우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가 각각 18.5%, 전혀 그렇지 않다가 7.4%로 나타났다. 40.7%가 조별활동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25.9%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토론이나 학술적 글쓰기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과 비교할 때, 학생들이 조별 활동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조별 활동이 학업에 도움이 되었느냐는 물음 역시 보통이다가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가 각각 18.5%, 그렇지 않다가 22.2%, 전혀 그렇지 않다가 7.4%로 나타났다. 응답 결과 33.3%의 학생들이 조별 활동의 효과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보인 반면 부정적 인식은 29.6%로 나타나, 조별 활동의 필요성보다 부정적 인식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근소한 차이지만 조별 활동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 비해, 실제 활동을 통해서도 그만큼의 효과를 얻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별 활동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어떤 점이 도움이 되었는가라는 질문에는 구성원들과의 논의 과정에서 생각이 넓어졌다가 44.4%, 다양한 자료를 찾는 데 도움이 되었다가 37.0%, 서로 격려하며 자신감을 갖는 데 도움이 되었다가 11.1%,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와 조별 활동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가 동일하게 3.7%로 나타났다. 이로 보아 학생들은 조별 활동을 통해 생각이 넓어진 것을 가장 많이 인식하고 있으며, 다양한 자료를 찾게 되었다는 점 또한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은 학생들이 협력학습의 긍정적 효과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조별 활동의 필요성과 장점을 교육할 때, 이러한 응답결과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조별 활동을 통해 지식이나 사고의 영역뿐만 아니라 서로 간의 격려, 자신감의 획득 같은 정서적 부분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특히 유학생들의 경우, 학업에서 자신감이 떨어진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점을 학습자들에게 인식시킴으로써, 조별 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고 학업 수행 능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자유롭게 응답하는 주관식 문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응답이 있었다. 교양수업에서 조별 활동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 조별 활동이 힘들어서, 시간을 맞추는 게 어려워서, 도움이 안 돼서’와 같은 응답이 있었다. 또 조별 활동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지 않아 화가 났다, 혼자 공부하는 게 편해서, 내 부분을 못하면 미안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공부하는 게 불편해서’와 같은 응답이 있었다. 이를 정리하면 ‘시간의 많이 소요 된다’, ‘조별 활동이 힘들다’, ‘도움이 안 된다’이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는 ‘시간의 많이 소요 된다’, ‘조별 활동이 힘들다’, ‘조원들 간에 열심히 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다’, ‘혼자 하는 게 편하다’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두 가지 모두에서 학생들은 ‘시간이 많이 소요 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거나 투입된 시간에 비해 많은 것을 얻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응답이다. 시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별 활동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인데, 이는 구성원들이 담당 역할을 충실히 하여 시간 투입을 최대한 줄이는 것과 부분적으로 ZOOM을 이용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학생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구성원들이 조별 활동을 통해 개인이 혼자 학습하는 것보다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점과, 정서적 지원도 가능하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지도할 필요가 있다.

‘조별 활동이 힘들다, 혼자 공부하는 게 편하다, 다른 사람과 함께 공부하는 게 불편해서’ 등의 경우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 자체를 힘들어 하거나 같이 공부하는 것을 힘들어 하는 경우이다.¹⁶⁾ 이는 개인의 성격적 특성이나 조 구성원과의 정서적 문제가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외국어인 한국어로 토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어 능력 차이에 때문에 발생하는 어려움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어 능력에 따라 조별 구성원들의 역할을 배분하여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정 학생에게

16) 조별 활동의 참여 정도의 차이에 따른 부분도 여기에 속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 항목을 분리해서 다룬다.

부담이 많이 가거나 특정 학생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한다. 이를 위해 학생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말하고 서로 충분히 논의를 함으로써, 효율적인 토론 준비가 이루어지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이 조별 활동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구성원들의 참여 태도에 차이가 있다는 점 때문이다. 적극적인 참여자와 소극적 참여자가 있는데, 결과는 공동의 책임이 된다는 점 때문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학생들에게 참여 정도에 비례하여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조별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게 것이 도움이 된다. 토론 준비를 위한 모임 날짜와 출석 여부, 토론 준비에서의 역할 등을 기록하면 구성원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학생들에게 조별 활동에 참여하여 노력한 만큼 그 결과가 토론과 학술적 글쓰기에서 드러난다는 점, 그리고 이 수업뿐만 아니라 전공 수업에서도 조별 활동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려주어 이 수업을 통해 조별 활동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해시킨다. 특히 유학생들이 한국 학생들과의 조별 활동에서 위축되거나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어 능력 차이가 있는 유학생들끼리의 조별 활동이 유의한 경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5.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교양수업 〈열린사고와 표현〉을 수강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조별 활동을 통한 토론, 토론과 연계한 학술적 글쓰기 수업을 진행한 후, 설문조사를 통해 수업의 반응을 살피고 보다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토론 수업이 대학에서의 학업에 도움이 되었으며, 토론이 교양 수업에서 필요하다는 데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토론수업에서 도움이 된 부분은 주장을 분명히 하고 논점을 찾는 것, 근거 제시 방법을 익히는 것이었으나 한국어로 토론하는 것과 토론 내용 구성을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학생들의 토론 교육에서는 한국어로 토론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토론 내용 준비 시 분량보다는 논리 구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논점을 명확히 분석하여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필요시 번역 사이트를 사용하여 근거 마련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한국어로 토론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 조 구성원과의 연습, 스마트폰 활용 등을 통한 연습을 권장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드물게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 때문에 토론이 필요 없거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도 있었다. 따라서 유학생들에게 토론 준비와 토론이 그것만으로 끝나는 단절적인 활동이 아니라, 학술적 글쓰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활동이라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학술적 글쓰기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유학생들은, 이 수업이 대학에서의 공부에 도움이 되었고 교양수업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긍정적 응답 비율이 토론 수업보다 높았다. 특히 도움이 된 것은 학술적인 글의 형식을 알게 된 것, 주제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을 알게 된 것 등 학술적인 글의 형식에 대한 이해가 높은 순위를 차지하였다. 반면 가장 어려움을 겪은 부분은 서론, 본론, 결론 구조에 맞도록 글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양수업에서 학술적 글쓰기가 도움이 되지 않았거나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없었는데, 이는 유학생들이 대학에서 학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학술적 글쓰기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론, 본론, 결론 쓰기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서론, 본론, 결론의 전형적인 구조를 모형으로 제시해주고, 예시 글을 통해 실제로 어떻게 글을 쓰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글의 개요를 작성하고 글을 쓸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토론과 연계한 학술적 글쓰기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조사에서는, 토론과 연계한 글쓰기가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다소 높았으며, 특히 주장을 분명히 하고 논점을 찾는 것과 논리적으로 글의 내용을 구성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도 있었는데,

토론 준비에 시간을 많이 할애해야 한다거나 조별 활동의 어려움 때문에 학술적 글쓰기에 토론을 연계하는 데 부정적인 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토론과 학술적 글쓰기를 연계하는 데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방법을 모색하고, 조별 활동의 어려움을 파악하여 유학생들이 두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토론을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토론 수업에 소요 되는 시간이 학술적 글쓰기를 위한 준비 과정이 된다는 점과 학업 수행에서 꼭 필요한 논리적 사고 신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교양 수업에서의 조별 활동의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조사에서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긍정적 응답이 부정적 응답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조별 활동을 통한 효과로는 생각이 넓어진 것, 다양한 자료를 찾게 된 것 등을 높게 꼽았는데, 이는 유학생들이 협력학습의 긍정적 효과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유학생들에게 조별 활동의 필요성과 장점을 교육할 때, 응답 결과를 활용하여 조별 활동을 통해 지식이나 사고의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고 이와 함께 서로 간의 격려, 자신감의 획득 같은 심리적 부분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유학생들의 경우, 학업에서 자신감이 떨어진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점을 학습자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조별 활동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어 능력의 차이에 따른 유학생들의 조별 활동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팀원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등 심리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조별 활동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도 있었는데 주요 이유는, 많은 시간의 소요와 구성원 참여 태도의 차이 때문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효율적인 조별 활동 방법과 역할 분담을 강조하고, 참여 정도에 따른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미리 설명하는 것도 필요하다.

참고문헌

- 강수진, 「논증적 글쓰기와 교육 토론의 통합 수업 모형 연구」, 『교양교육연구』 7(6), 한국교양교육학회, 2013.
- 김민애, 「한국어 토론 수업 내용 연구: 고급 학습자의 논증 구성을 중심으로」, 『어문학논총』 30(1), 국민대학교 어문학연구소, 2011.
- 김수은·이선영, 「외국인 학부생 대상 전략 중심 토론 수업의 효과」, 『우리어문 연구』 59, 우리어문학회, 2017.
- 김유미, 「대학 글쓰기 교육에서 토론과 쓰기의 연계성 활성화 방안」, 『우리어문 연구』 56, 우리어문학회, 2016.
- 송명진,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학글쓰기 교육 연구」, 『리터러시 연구』 13(5), 리터러시학회, 2022.
- 윤지원·전미화, 「학문목적 한국어 학습자 쓰기의 내용 지식 구성 양상 연구」, 『우리말글』 58, 우리말글학회, 2013.
- 이미선, 「한국으로 유학 온 유학생들의 학술적 글쓰기에 대한 어려움과 원인 탐색 및 요구 분석」,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0(5), 한국국제문화교류학회, 2021.
- 이선영·나윤주,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적응 실태조사-교양교과목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교양교육연구』 12(6), 한국교양교육학회, 2018.
- 이준호, 「대학 수학 목적의 쓰기 교육을 위한 교수요목 설계-보고서 쓰기 교육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이지용, 「학문목적 한국어 토론 교육 방안: 논증 범주를 중심으로」, 『한국어정보학』 14(2), 한국어정보학회, 2012.
- 장은경, 「한국어 학문목적 쓰기 교육 방안 연구-참고텍스트의 내용 통합과 재 구성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주월랑, 「외국인 유학생의 한국어 토론 태도에 미치는 요인 분석 연구」, 『이중언어학』 82, 이중언어학회, 2021.
- 최은지, 「고급 학습자들의 담화통합 쓰기 양상」, 『이중언어학』 49, 이중언어학회, 2012.
- 한하림·이지혜,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의 토론 불안 연구」, 『이중언어학』 71, 이중언어학회, 2018.

〈Abstract〉

**Case Study on the Operation of Liberal Arts Courses
to Enhance International Students'
Academic Performance**
- Focusing on the Liberal Arts Course 〈Open-minded Thinking
& Linguistic Expression〉 at P University -

Cha, Yun-Jung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responses to the class and seek more effective educational methods by conducting a survey after conducting debate through group activities and academic writing classes linked to the debate for international students participating in liberal arts classes at P University. According to the survey results, most international students found the debate and academic writing classes helpful for their academic performance at the university and showed a positive attitude towards the necessity of such classes as part of the liberal arts curriculum. In the debate classes, students found it helpful for clearly stating arguments, identifying key points, and understanding how to present evidence. However, they faced difficulties in debating in Korean and organizing the content of the debate. In the academic writing classes, students recognized that it helped them understand the format of academic writing and the logical presentation of topics and supporting sentences, although they found it challenging to write according to the introduction-body-conclusion structure. While many respondents indicated that academic writing linked to debate was beneficial, there were negative responses due to the significant time required for debate preparation and the challenges of group activities. Regarding the necessity and effectiveness of group activities, students recognized the positive effects of collaborative learning, but there were also negative responses due to the time required and differences in participation attitudes among group members. Therefore, to

provide more effective group activities, debates, and academic writing education for international students, it is necessary to guide them on ways to reduce the burden of debate in Korean, focus on constructing logic for debate and academic writing, and offer efficient group activity methods and psychological support.

* Key Words: International student, Group activities, Debate, Academic writing, Educational method

· 논문투고일: 2024년 06월 03일 · 심사완료일: 2024년 07월 07일 · 게재결정일: 2024년 07월 25일
--